

를 생략하고 마무리 맺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5)나가는 말

본 논문의 나가는 말 부분은 논문에 있는 주장들을 다시 한번 반복한 내용으로, 논문에서 논의하고 분석한 전체 내용이 제시하는 방향, 이른바 결론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4. 논문의 구조적인 측면

1) 본 논문의 내용에 인용부분과 너무 많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하여 인용문들과 필자가 주장 하는 내용과 동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띄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인용한 내용의 핵심을 필자가 도출하여, 그것을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은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는데, 본 논문에서는 인용한 부분들이 필자의 의견을 대신 전하는 형태로 사용되어,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필자의 요약분석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듯합니다.

2)본 논문의 제목들이 학술논문의 그것과는 괴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술논문의 경우, 세부 목차가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나열되는 데 비해, 본 논문은 마치 신문기사 헤드라인 같이 내용을 담은 형태 위주로 되어 있어서, 논문의 체계적인 전개에 지장을 주는 듯 합니다.

3)본 논문의 소제목에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소제목이 언론매체의 헤드라인같이 다분히 주관적이고 때로 선정적이기 까지 합니다. 예컨대, “편식 이제 그만”, “기본의 충실이 곧 복지 실천”, “이제 실천 “ 등이 그러한 경우로서, 학술논문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 제시로, 읽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식견으로, 너무 많은 지적을 한 것 같아, 일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라건대,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를 선별하여, 최대한으로 구체적으로 잡아서, 이론, 선행연구, 자료(통계자료, 실례..), 특히 성경말씀 속에 사회복지에 관한 진리를 체계적인 분석함을 통해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논평을 마칩니다.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 현황과 제언³⁷⁾ - 경기도를 중심으로 -

이 상 무(평택대학교)

초록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 사회복지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교회 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언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 결과 설문조사에 참여한 144개 교회 중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한 교회는 120개소로 83%의 교회가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교회의 총 예산(성도)규모가 클수록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더 큰 규모의 예산을 사회복지 활동에 투입하였다. 한편 교회 총 예산 중 사회복지활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예산은 교회의 일반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며, 사회복지활동의 주요 대상은 빈곤계층과 노인이었다. 114개 교회가 사회복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38억 2천만원이며, 각 교회가 전체 예산 중 평균 8.74%를 사회복지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관한 자체 평가가 대체로 긍정적이며, 향후 사회복지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사는 밝혔다. 그러나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계획 수립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활동에 관한 평가의 부족은 향후 교회 사회복지 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질적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소재 교회의 높은 사회복지활동 수준을 보여준 성과와 함께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교회사회복지활동, 예산, 대상, 계획, 평가

I. 서론

기독교는 지난 1세기동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해왔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조선 말기 선교와 함께 현대적 사회복지사업을 한국 사회에 소개하였다(성규탁 외, 1991; 최원규, 1996). 특히 기독교 선교 단체는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 동안 사회에서 천대받던 빈민, 고아, 장애인 결핵환자 등을 위한 구호사업을 수행하였고, 많은 피난민과 고아가 양산된 한국전쟁 이후에 시설구호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사회복지에서 시설중심의 사업을 정착시켜왔다(최원규, 1996). 최근의 복지국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국 정부는 잔여적 복지를 고수하였고, 잔여적 복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교회가 일부 해소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유산을 배경으로 1970년대 시작된 경제성장과 함께 교회의 자원과 재정도

37) 본 연구는 경기도복지재단에서 발간한 “경기도 종교기관 사회공헌 현황 및 지원정책 연구(2011)”의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혀둡니다.

증가하였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회봉사와 구제를 통한 사회복지사업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 교회와 관련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사회의 신뢰를 상실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은 몇몇 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교인의 증가세가 1990년대 이후 감소하면서 2000년대에는 실질적인 감소세로 들어섰으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 또한 확대되어 타 종교에 비해 사회적 공신력이 낮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이만식, 2004).

지금의 한국 교회가 당면한 문제의 원인에 관해 한국 교회가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충분히 도모하지 못 하였다는 견해가 공감을 얻고 있다(이만식, 2004). 특히, 한국사회에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 하면서, 교회의 전반적인 영향력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가 적극적인 사회복지활동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형교회와 대표적 교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반성과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교회사회복지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교회 사회복지활동의 현황 파악을 토대로 발전 방향 제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참여 여부, 참여 형태(기부와 자원봉사) 및 규모(사회공헌 사업 예산과 자원봉사 참여율 등) 및 사회공헌 활동 장애 요인을 조사하고,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사회복지사업이 교회 본연의 임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관한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연구와 교회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경험적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 교회 사회복지활동의 영향요인을 살펴 본 경험적 연구들은 대체로 목회자, 성도, 교회, 지역사회의 특성이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성규탁 외(1991)는 교회, 목회자, 지역사회의 특성과 교회의 사회봉사활동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교회부서간의 협조 수준이 높을수록, 목회자의 사회봉사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목회자가 지역사회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할수록 사회봉사비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김미숙(2000)의 연구에서는 교회의 사회복지예산, 교인 수, 교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사회복지전문가 유무, 교회소재지,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시설의 충분성, 교회개방여부가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목회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 교회간의 협력 정도, 교회와 타 기관과의 협력정도, 사회복지를 위한 인력의 충분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유장춘(2003)은 전국의 8대 교단의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목회자의 복지활동참여, 사회복지교육-훈련 경험, 교회의 예산, 교회 내 복지전담 부서 설치 여부, 지역기관과의 관

계가 교회의 복지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만식(2004)은 교회의 사회복지에 대한 경향연구(trend study)를 실시하여 목회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견해, 사회복지 전문가 고용 유무,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 분야, 교회의 재정 중 사회복지비의 비율, 교회의 재정 중 이상적인 사회복지비의 비율,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의 저해 요인 등을 조사하였다.

강철희 외(2008)는 교회의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지출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을 예측하였다. 대전지역 155개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 이 지역 교회들의 사회복지 예산비율은 전체 예산의 평균 10.0%를 차지하였고, 적절한 사회복지 예산비율은 17.2%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목회자의 사회봉사활동 관여시간이 많을수록, 사회복지 예산 비율의 적정선을 높게 인식할수록, 사회복지활동 전담직원을 고용할수록 사회복지 예산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대현(2011)은 대전지역 침례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담임목사의 사회복지 실천 정도가 높을수록, 교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복지기관의 방문횟수가 적을수록, 교회의 사회복지 교육시설이 많을수록, 교회의 내·외부 호응도가 높을수록, 교회의 사회복지예산이 충분할수록 사회복지 활동이 증가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경기도에 소재한 전체 교회는 약 1만개소로 추정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예수교 장로회(합동), 예수교 장로회(통합), 침례교, 순복음 등 4대 교단의 획득가능한 주소록에 등재된 교회 3,875개소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모집단 설정 후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교회가 자발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비확률 편의샘플링을 실시하였다. 비확률 샘플링은 확률 샘플링에 비해 표본의 대표성이 낮지만(손병덕 외, 2010), 개별 교회에 대한 사전 정보(예산, 구성원 수 등)가 제한된 상황에서 확률샘플링의 차선책으로 활용되었다. 설문조사는 2011년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114개 교회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2. 조사도구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현황 조사를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문헌연구와 교회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설문지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점검하였다. 설문지는 사회복지활동 참여 여부, 참여 방법, 총 비용, 자원봉사 참여 수준, 평가, 향후 계획을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회수된 설문지는 이상치와 결측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상치가 발견된 경우, 설문지 작성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확인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응답 내용을 수정하였다. 데이터 클리닝 완료 후, 1차로 각 설문 문항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2차로 주요 변수의 관계 분석을 위해 상관관계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등 추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MS 엑셀과 SAS 9.2를 사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교회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114개 교회의 특성을 구성원수와 예산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교회의 평균 구성원 수는 501명이며, 최고는 15,000명, 최저는 5명이었다. 그리고 중위수는 60명, 최빈값은 20명으로 소규모 교회가 다수를 구성하였다. 교회의 평균 예산 액수는 7억3천만 원이었으며, 최고 예산 액수는 180억 원, 최저 예산 액수는 6백만 원으로 교회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³⁸⁾

<표 1> 사회공헌 설문조사 참여 교회 특성

	평균	최고	최저	표준편차	중위수	최빈값
구성원(명)	501	15,000	5	1,900	60	20
예산(원)	7억3천만	180억	600만	24억5천	7천만	5천만

2.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참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144개 교회 중 2010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활동³⁹⁾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회는 120개소 (83%), 미참여한 교회는 24개 (17%)였다(<표 2>).

38) 교회의 구성원 수와 예산 규모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적인 상관관계(Correlation Coefficient $\alpha = 0.87$, $p < .0001$)를 나타내 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교회의 예산 규모 또한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39)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교회의 기부 또는 자원봉사활동 중 적어도 하나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표 2> 사회복지활동 참여 여부

전체 교회	사회복지활동 참여 교회	사회복지활동 미참여 교회
144(100%)	120(83%)	24(17%)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교회 예산규모가 사회복지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표 3>).⁴⁰⁾ 분석결과, 교회의 예산규모가 증가수록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참여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Wald Chi-Square=7.07, $p=0.008$).

<표 3> 사회공헌활동 참여와 교회 예산의 관계

Parameter	DF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Log예산	1	1.20	0.45	7.07	0.008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교회를 대상으로 미참여 이유를 조사하였다. 미참여 이유 중 '경제적 여유가 없음'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회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외에 구성원의 참여 부족, 대표자의 의지 부족 등의 소수 의견이 있었다(<표 4>).

<표 4> 사회공헌활동 미참여 이유

구분(중복 응답)	해당응답 빈도	해당응답 비율(%)
경제적 여유가 없음	22	70.97
구성원의 요구나 참여 부족	2	6.45
대표자의 의지 부족	2	6.45
참여방법을 모름	3	9.68
기타	2	6.45
합계	31	100

2. 사회공헌활동 참여 방법

사회복지활동에 필요한 재원에 관하여 101개 교회가 교회 구성원들이 기여하는 기관의 일 반재정을 사회복지활동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사회복지활동 재원 중 평균 73%를 교회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하였다. 다음으로 많은 교회가 모금행사를 통한 재원

40) 구성원 수와 예산규모 두 변수는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예산 규모만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에 포함하였다. 또한 예산규모변수는 왜도(skewness)가 심각하여 정규분포를 획득하기 위해 상용로그를 이용하여 예산규모 변수를 변환(transformation)하였다.

(52개 교회)을 활용하였고, 전체 사회복지활동 자원 중 평균 33%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51개 교회가 외부의 특별 기부를 재원으로 활용하였고, 특별 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였다(<표 5>).

<표 5> 사회복지활동 자원의 종류와 평균 비율

구 분 (중복응답)	응답기관 수	전체 사회복지 자원 중 차지하는 비율(%)
교회의 일반재정	101	73
외부의 특별기부	51	25
모금행사	52	33
기타	34	47

교회 사회복지활동의 주요 관심 대상으로 빈곤계층(61개 교회, 27.4%)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노인(60개 교회, 26.9%)이 많았고,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관한 응답 비중(24개 교회, 10.8%)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에 관한 관심도 일부 응답하였고, 여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6>).

<표 6> 사회복지활동 주요 관심 대상

구 분 (중복응답)	응답기관 수	비율
없음	4	1.79
노인	60	26.91
장애인	24	10.76
아동	24	10.76
청소년	24	10.76
여성	1	0.45
북한이탈주민	11	4.93
다문화가정	8	3.59
빈곤계층	61	27.35
기타	6	2.69
합계	223	100

사회복지활동의 주요 관심 분야에 관해서 과반수의 교회(103개 교회, 52.8%)가 사회복지를 꼽았다. 다음으로 교육(39개 교회, 20%), 국제 구호(22개 교회, 11.3%), 문화 예술(13개 교회, 6.7%), 재난 구호(9개 교회, 4.6%), 보건 의료(7개 교회, 3.6%), 환경 보호(1개 교회, 0.5%)의 순으로 관심 분야를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교회는 사회복지와 교육 분야에 사회복지활동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사회복지활동 주요 관심 분야

구 분 (중복응답)	응답기관 수	비율
사회복지	103	52.82
교육	39	20.00
문화 예술	13	6.67
환경 보호	1	0.51
재난 구호	9	4.62
보건 의료	7	3.59
국제 구호	22	11.28
기타	1	0.51
합계	195	100.00

사회복지활동 참여 이유로 과반수에 가까운 교회가 종교적 신념(104개 교회, 49.8%)을 들어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회복지활동을 통해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많은 교회가 사회적 책임(66개 교회, 31.6%), 대표자의 의지(24개 교회, 11.5%)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교회가 종교적 신념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도 높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바람직한 결과이다(<표 8>).

<표 8> 사회복지활동 참여 이유

구 분 (중복응답)	응답기관 수	비율
종교적 신념	104	49.76
대표자의 의지	24	11.48
구성원의 의지	12	5.74
최근 추세 반영	1	0.48
기관의 전통	2	0.96
사회적 책임	66	31.58
기타	0	0.00
합계	209	100.00

사회복지활동의 장애요인 중 예산 부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80개 교회, 41%). 이외에 전담 전담인력 부족(31개 교회, 15.9%), 사회복지활동에 관한 정보 부족(24개 교회, 12.3%), 정부지원 부족, 행정적 어려움(21개 교회, 10.8%), 구성원의 참여부족(15개 교회, 7.7)을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반면, 대표자의 관심부족은 1개 교회에 지나지 않았다(<표

9>).

<표 9> 사회공헌활동 장애 요인

구분 (중복응답)	응답기관 수	비율
예산 부족	80	41.03
전담인력 부족	31	15.90
대표자 관심부족	1	0.51
구성원 참여부족	15	7.69
정부지원 부족	21	10.77
정보 부족	24	12.31
행정적 어려움	21	10.77
기타	2	1.03
합계	195	100.00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위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교회는 37개소(30.8%)이며, 전담인력만 있는 교회는 13개소(10.8%)를 나타냈다. 반면에 비슷한 숫자의 교회(49개 교회, 40.8%)은 전담조직과 인력 모두 갖추지 못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10>). 전담조직과 인력은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볼 때 아직까지 절반에 가까운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의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0> 사회복지활동 전담조직(인력) 여부

구분	응답기관 수	비율
전담조직과 인력 모두 있음	37	30.83
전담인력만 있음	13	10.83
사회복지업무 담당 직원 있음	21	17.50
전담조직과 인력 모두 없음	49	40.83
합계	120	100.00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기관의 예산과 사회복지 전담조직(인력) 구비 여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11>), 예산이 증가할수록 사회복지 전담조직(인력)을 갖출 가능성 또한 증가하였다(Wald Chi-Square=14.44, p=0.0001).

<표 11> 사회복지 전담조직(인력) 여부

Parameter	DF	Estimate	Standar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
Log예산	1	1.16	0.30	14.44	0.0001

3. 사회복지활동 실적

교회의 사회복지비용을 측정하기 우선 직접사업비용⁴¹⁾, 현금지원, 현물지원⁴²⁾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뒤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하여 전체 사회복지비용을 계산하였다(<표 12>). 전체 사회복지비용은 102개 교회가 평균 3천7백만 원, 최고 6억5천만 원, 최저 20만 원을 지출하였다. 직접사업을 수행한 교회는 69개 교회이며, 직접사업비용은 평균 2천6백만 원, 최고, 4억8천만 원, 최저 10만 원이었다. 현금지원의 경우 79개 교회가 참여하여 평균 1천8백만 원, 최고 3억8천만 원, 최저 10만 원으로 나타났다. 현물지원은 58개 교회가 평균 1천1십만 원, 최고 1억7천만 원, 최저 10만 원을 사용하였다. 종합적으로 사회복지비용은 교회의 규모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표 12> 사회복지비용

구분	응답기관 수	평균액수(원)	최고액수(원)	최저액수(원)
전체 사회복지비용	102	3천7백만	6억5천만	20만
직접사업비용	69	2천6백만	4억8천만	10만
현금지원	79	1천8백만	3억8천만	10만
현물지원	58	1천1십만	1억7천만	5만

교회의 사회복지 총비용이 교회의 연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전체 102개 교회의 예산 총액은 912억6천만 원, 사회복지 총비용은 38억2천만 원으로 4.18%를 사회복지활동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각 교회별로 살펴볼 때, 각 교회의 평균 예산은 8억9천5백만 원이고, 평균 3천7백만 원을 사회복지 활동을 위해 사용하였다. 각 교회가 연간 예산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비용의 평균비율은 8.74%였다(<표 13>).

41) 교회 또는 교회가 단독으로 직접 설립한 법인이 직접 수행한 사회복지 사업 비용 또는 기관 또는 기관이 단독으로 직접 설립한 법인이 직접 수행한 구성원의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포함한다.
 42)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은 사회복지활동을 목적으로 현금, 현물을 대가없이 지출하는 비용과 기관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직영, 위탁포함)에 투입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단, ① 국가 보조금을 포함한 외부 지원금, ② 이용자 부담금 ③ 종교 활동(선교, 포교 등)을 위한 지출은 제외한다.

<표 13> 연간 예산 대비 사회공헌 총비용 비율

연간 예산 (원)	전체	평균
	912억6천만	8억9천5백만
사회복지 총비용 (원)	전체	평균
	38억2천만	3천7백만
연간 예산 대비 사회복지 총비용 (%)	전체 ⁴³⁾	평균 ⁴⁴⁾
	4.18	8.74

각 교회의 연간 예산, 사회복지 총비용, 연간 예산대비 사회복지 총비용의 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교회의 예산 규모는 사회복지 총비용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연간 예산대비 사회복지 총비용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교회의 전체 예산이 증가할수록 사회복지 총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총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였다(<표 14>).

<표 14> 연간 예산, 사회공헌 총비용, 사회공헌 비용 비율의 상관관계

	전체예산 대비 사회공헌 비용 비율	사회공헌 총비용	Log전체 예산
전체예산 대비 사회공헌 비용 비율	1.00		
사회공헌 총비용	-0.04	1.00	
Log전체 예산	-0.36***	0.62***	1.00

직접사업 비용을 제외한 기부분야 규모를 살펴볼 때 사회복지분야(87개 교회, 평균 2천5백만 원)에 가장 많은 기부를 하였고, 환경보호 분야에 가장 적게 기부하였다(4개 교회, 1백4십만 원). 이외에 교육 및 학술 연구(34개 교회, 평균 비용 9백5십만 원), 국제 구호(39개 교회, 평균 비용 5백3십만 원), 재난구호(40개 교회, 평균 비용 4백만 원), 문화예술 및 체육(16개 교회, 평균 비용 2백9십만 원), 보건 및 의료(14개 교회, 평균 비용 1백9십만 원), 환경보호(4개 교회, 평균 비용 1백4십만 원)부분에 기부하였다(<표 15>).

43) 산식 : $[\sum(\text{교회의 사회복지 총비용}) / \sum(\text{교회의 연간 예산 총합})] * 100$
 44) 산식 : $\{ \sum[(\text{교회의 사회복지 총비용} / \text{교회의 연간 예산 총합}) * 100] \} / 102$

<표 15> 분야별 기부 규모

구 분(중복 응답)	기관	평균 비용(원)
사회복지	87	2천5백만
교육 및 학술연구	34	9백5십만
문화예술 및 체육	16	2백9십만
환경보호	4	1백4십만
재난구호	40	4백만
보건 및 의료	14	1백9십만
국제 구호	39	5백3십만
기타	22	1천4백만

교회의 성도가 자원봉사⁴⁵⁾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88개 교회를 살펴볼 때 교회의 성도 중 평균 28.30%가 2010년 한 해 동안 자원봉사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율이 가장 높은 교회는 100%, 가장 낮은 교회는 1%였다(<표 16>). 전반적인 자원봉사 참여율이 대체로 낮은 상황에서 교회의 자원봉사참여율은 큰 격차를 보였다.

<표 16> 자원봉사참여율

응답기관 수	평균참여율(%)	최고참여율(%)	최저참여율(%)
88	28.30	100	1

교회 성도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의 종류를 질문한 결과(<표 17>), 구성원의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47개 교회, 35.3%), 다음으로 자원봉사 시간인정(27개 교회, 20.3%), 자원봉사 관련 교육 제공(19개 교회, 14.3%), 표창(8개 교회, 6%)의 순이었다. 특별한 자원봉사 지원제도가 없다고 응답한 기관도 22.6%(30개 교회)에 달하였다. 대체로 많은 수의 기관들이 하나 이상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일부 기관은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5) 자원봉사는 소외계층과 지역사회를 위한 종교기관의 조직적인 자원봉사를 의미한다. 단, ① 종교 활동(선교, 포교 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와 ② 구성원 개인차원의 자원봉사는 제외한다.

〈표 17〉 자원봉사활동 지원제도

구 분(중복응답)	교회 수	비율(%)
지원없음	30	22.56
경비 지원	47	35.34
표창	8	6.02
봉사시간인정	27	20.30
교육제공	19	14.29
기타	2	1.50
합계	133	100.00

4. 사회복지활동 계획과 평가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계획수립 방법을 직접사업과 기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직접사업의 경우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교회가 9개소(8.82%),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립하는 교회가 20개소(19.61%)를 차지하여 적잖은 교회가 장기적인 계획 수립 없이 직접사업을 수행하였다.

기부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기부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교회가 10개소(9.80%),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립하는 교회가 29개소(28.44%)를 차지하여 상황의 필요에 따라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행정에 있어 중요한 기획이 미비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복지사업과 기부가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사회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복지활동의 책무성(accountability)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포함한 내실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김영중, 2012; 최성재·남기민, 2010).

〈표 18〉 사회복지활동 계획수립 방법

구 분		기관 수	비율(%)
직접사업	계획 미수립	9	8.82
	연초에 계획 수립	41	40.20
	필요한 경우 수립	20	19.61
	두 가지 경우 모두	32	31.37
	합계	102	100
기부	계획 미수립	10	9.80
	연초에 계획 수립	27	26.47
	필요한 경우 수립	29	28.44
	두 가지 경우 모두	36	35.29
	합계	102	100

사회복지조직의 책무성과 효율성의 강화(김영중, 2010; 최성재·남기민, 2010) 측면에서 중요한 평가 부분에서 대부분의 교회가 매우 낮은 수준의 평가(63개 교회, 52.50%) 또는 평가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47개 교회, 39.17%)는 점은 향후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발전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지적되어야 한다(〈표 18〉).

〈표 18〉 사회공헌활동 평가방법

구 분	기관	비율(%)
단순한 자체 평가	63	52.50
과학적인 자체 평가	2	1.67
외부 전문가 평가	1	0.83
내·외부 공동평가	5	4.17
별도 평가 없음	47	39.17
기타	2	1.66
합계	120	100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교회의 이미지 개선, 교회 내부 문화 개선, 지역사회 복지 증진, 사회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60~70%의 답변이 긍정적이었다(〈표 19〉).

〈표 19〉 사회복지활동 성과 평가

구 분	교회 이미지 개선		교회 문화 개선		지역사회복지 증진		사회문제 해결기여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기관	비율	기관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3	2.5	3	2.5	4	3.33	4	3.33
별로 그렇지 않다	4	3.33	3	2.5	7	5.83	13	10.83
그저 그렇다	22	18.33	20	16.67	22	18.33	29	24.17
그런 편이다	61	50.84	73	60.83	68	56.68	61	50.84
매우 그렇다	30	25	21	17.5	19	15.83	13	10.83
합계	120	100	120	100	120	100	120	100

향후 사회복지활동의 규모 확대, 유지 또는 축소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사(84개 교회, 70%)를 밝혔다. 반면,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교회는 전무하였다(〈표 20〉).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교회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가리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표 20> 사회공헌활동 규모 확대, 유지 또는 축소 계획

구분	기관	비율(%)
잘 모름	9	7.50
규모 유지	27	22.50
규모 확대	84	70.00
규모 축소	0	0
합계	120	100

V. 결론 및 논의

최근 보편적 복지로 대변되는 복지 욕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증가 수준을 초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사회복지 분야에서 교회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교회 사회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 사회복지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교회 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언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와 관련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144개 교회 중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한 교회는 120개소로 83%의 교회가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였다. 실질적으로 상당수의 교회가 미자립교회⁴⁶⁾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높은 사회복지활동 참여율은 교회의 그리스도 사랑의 실천과 함께 높은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보여준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회의 총 예산 또는 성도 수였다. 교회의 총 예산(성도)규모가 클수록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더 큰 규모의 예산을 사회복지 활동에 투입하였다. 한편 교회 총 예산 중 사회복지활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특성은 대형교회일수록 교회 운영을 위한 관리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형교회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 중소형 교회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대형교회와 중소형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을 구분하여 분석하고 대형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예산은 교회의 일반 제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교회의 일반 제정에 대한 높은 의존은 재원의 독립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인 자원개발을 통해 사회복지활동의 폭을 넓혀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교회의 자원개발에 대한 현황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 교회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사회복지활동의 주요 대상은 빈곤계층과 노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회가 전통적인 사회적 약자인 빈자와 노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교회가 지역사

46)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0,710개 교회 중 미자립교회가 4,112개로 38%를 차지하고 있다.

회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대상을 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교회 사회복지활동이 양적, 질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모든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전담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이런 경우 목회자 또는 교회 직원의 사회복지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경기도 소재 114개 교회가 사회복지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38억 2천만원이며, 각 교회가 전체 예산 중 평균 8.74%를 사회복지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경기도 소재 전체 교회의 사회복지비용을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가 경기도의 복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추정이 가능하다. 비록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이 홍보가 주된 목적은 아닐지라도, 정당한 사회적 평가와 교회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과 관련된 자료 축적이 필요하다. 향후 교단차원에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자료 수집과 관리 작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교회 성도의 자원봉사 참여는 28.30%로 나타났다. 2011년 현재 성인 인구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12.9%(통계청, 2013)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회 성도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한편 Bryant 외(2003)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봉사에 많이 참여할수록 기부행위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성도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관한 자체 평가가 대체로 긍정적이며, 향후 사회복지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사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회가 더욱 사회복지 활동을 확대해나가리라는 예상 또한 가능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교회의 사회복지활동 계획 수립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활동에 관한 평가의 부족은 향후 교회 사회복지 활동의 전문성 향상과 질적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계획 수립과 평가의 강화를 위해 교회 자체의 노력이 우선되어야하며, 동시에 지방정부, 공공·민간 연구기관의 지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소재 교회의 높은 사회복지활동 수준을 보여준 성과와 함께 향후 개선해 나가야할 과제를 제시하는 성과와 함께 한계를 가진다. 이번 조사 대상이 경기도 소재 교회 중 일부로 국한되었으며, 목회자의 인식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향후 연구를 통해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철희·정상원·황순환 (2008). “교회 사회복지활동 참여수준에 관한 탐색연구 : 교회 사회복지예산 지출수준의 예측요인.” 『한국비영리연구』, 7(2), 69-96.
- 김미숙 (2000). “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 20(1), 32-63.
- 김영중 (2012).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미자립교회 지원제도 통계 http://www.icsis.co.kr/sub/support_view.asp

성규탁·김동배·은준관·박준서 (1991). “한국교회의 사회복지 참여에 관한 연구.” 『신학논단』 .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19. 247-296.

손병덕 (2004). “전국복지시설의 운영주체 분석에 의한 종교 교단별 사회복지사업활동 현황조사 그리고 한국 교회사회복지의 과제.” 『총신대논총』 . 24. 421-461.

손병덕 외 (2010).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이해와 실천.” 학지사.

안대현 (2011). “교회 사회복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대전지역 침례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사회사업』 . 16. 91-129.

유장춘 (2003). “교회사회복지활동의 결정요인과 그 활성화를 위한 제언.” 교회사회사업. 『한국교회사회사업학회』 . 1. 145-181.

이만식 (2004).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실태와 활성화과제.” 『장신논단』 . 22. 493-516.

최성재·남기민 (2010). “사회복지행정론.” 나눔출판.

최원규 (1996). “외국민간원조단체의 활동과 한국 사회사업 발전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통계청 자원봉사 참여현황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18&bbs=INDX_001&clas_div=C&rootKey=1.48.0

Bryant, W.K., Jeon-Slauter, H., Kang, H. & Tax, A. (2003). “Participation in philanthropic activities: Donating Money and Time.” *Journal of Consumer Policy* 26. 43-73.

Abstract

The present state of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and its implications

- Focused on Gyeonggi province -

Sangmoo Lee(Pyeongtaek University)

The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present state of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in Gyeonggi province and suggest related implication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among 144 churches in the survey, 120(83%) churches participated in social welfare activities. In addition, as the total budget of church increased, churches were more likely to do social welfare activities and spend more budget for social welfare activities. On the contrary, the ratio of budget for social welfare to total budget decreased when the total budget of church increased. The budget for social welfare mainly rely on the general avenue of church and low-income family and senior citizens were main interest groups for social welfare activities. 114 churches' budget for social welfare sum up to 3 billion 800 million Korean won and it took up 8.74% of the total budget. Churches evaluated their social welfare activities positive in general and intended to do social welfare activities more actively. However, many churches had not made plan or had systemic evaluation for their social welfare activities.

Key words : Church social welfare activities, budget, interest group, planning, evaluation

한국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방안 연구47)

이형진(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한국의 기독교가 1980년대 이후 성장이 둔화되고, 1990년 이후 성장이 눈에 띄게 감소하다가 최근 10년 동안 기독교 인구가 감소한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큰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과 함께 교회의 생존적 차원에서도 문제의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진단과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도덕성 등 사회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정적 영향력을 끼쳤으며, 사회복지 실천 등으로 나타나는 긍정적 영향력 역시 매우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회의 사회복지실천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상실은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기독교 정신과 인적, 물질 자원들을 대사회적으로 소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사회복지 실천에서 전문적이지 못하였으며, 지극히 초보적인 자선적인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있다.

기독교와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과 사회가 교회와 기독교에 기대하는 요구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한국 교회가 얼마나 사명과 기대에 부응해 왔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사회적 공신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지역사회복지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역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례들과, 중소형 교회에서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함으로 지역사회복지에 접근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비전문성, 비본질성에 따른 부작용, 교회 조직과 시스템에 갇힌 비효율성 등으로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

47) 이형진, '한국교회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방안 연구'(2007,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를 요약 수정하였음.